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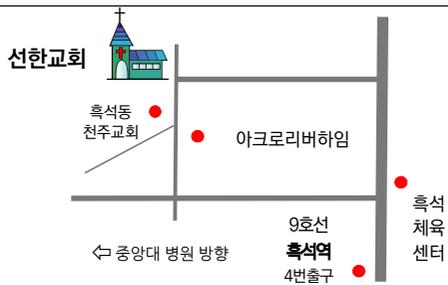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 | | | |
|------------------|----------------|------------------------|------------------------|
| 주 일 예 배 | 1부 주일 오전 9:30 |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 |
| | 2부 주일 오전 11:00 | | |
| 오 후 예 배 | 주일 오후 3:30 | 유 아 부 |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
| | (5째주 셀가족모임) | 유 초 등 부 |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
| 중 국 어 예 배 | 주일 오후 4:00 | 청 소 년 부 | 오전 9:50 마리아회 오후 2:00 |
| 수 요 예 배 | 수요일 저녁 7:30 | 청 년 부 |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
| 금 요 기 도 회 | 금요일 저녁 8:30 | 영 어 예 배 |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
| 새 벽 예 배 | 월-금요일 새벽 5:30 | | |
| | *월삭새벽예배 6:00 | | |
| 셀 가족 모임 | 셀별로 정한 시간 | | |

섬기는 분들

| | | | |
|----------------|-------------------|------------------|----------------------|
| 사 역 자 | 담임목사 임 춘 배 | 협력선교사 | 강성규 (러시아) |
| | 교육목사 권인혁 | 국내선교사 | 오인숙, 한 배 선 |
| | 전임전도사 김진만 | 협력교회 |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
| | 협력전도사 오효남 | |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
| 은 퇴 장 로 | 김 대 희, 박 희 태 | |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
| 장 로 | 유 신 웅 (집사장) | |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
| | 조 윤 익, 고 상 돈 | 관 리 장 로 | 손 석 규 |
| | 박 영 근, 조 계 승 | 500/50 교회 | (1호) 필리핀 Good Church |
| | 윤 호 중 | |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행 18:10)

I Have Many People in this city

실 천 사 항 지역봉사 전도 / 기도 선교사의 삶

| | | |
|---------------------------|-----------|-----------------|
| 삶의 방식 (빌 4:1-7) | 교회에 대하여 :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
| | 개인에 대하여 :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
| | 성도에 대하여 :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
| | 문제에 대하여 :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1:1)



담임목사 임 춘 배

| | | |
|--------------------|-------------------|--------------|
| 오 전 예 배 | 오전 9:30 | |
| | 오전 11:00 |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기 원 | 인도자 | |
| 찬 양 과 경 배 | 19장 (통일찬송가 44장) | |
| 교 독 문 |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 |
| 찬 양 과 경 배 | 360장 (통일찬송가 402장) | |
| 예 배 기 도 | 조계승 장로 | |
| 찬 양 | 드림성가대 | |
| 말 씬 봉 독 | 사도행전 28장 1절 ~ 10절 | |
| 설 교 | 멜리데 섬에서 (임춘배 목사) | |
| 헌 금 드 림 | 이태수 이호재 정구원 | |
| 환 영 및 광 고 | 인도자 | |
| 파 송 의 노 래 | 선한 능력으로 | |
| 축 도 | 임춘배 목사 | |
| 송 영 | 드림성가대 | |
| 성 도 의 교 제 | 다함께 | |

| | | | |
|--------------------|---------|--|--------------|
| 주 일 오 후 | 오후 3:30 | 예배장소 : 본 당 |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 찬 양 | JOY AND | |
| | 대 표 기 도 | 허정미 집사 | |
| | 말 씬 | 성경오류논쟁 5강 (출2:18, 3:1, 민10:29) 모세 장인의 이름은? (임춘배 목사) | |
| 광 고 및 축 도 | 임춘배 목사 | | |

| | | | |
|--------------------|-----------------------------|------------|--------------|
| 수 요 예 배 | 오후 7:30 | 예배장소 : 본 당 | 인도자 : 임춘배 목사 |
| | 복음의 능력과 열망 (롬1:8-16) 임춘배 목사 | | |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직 회** 다음 주일(9월 1일) 2부 예배 후 제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 월삭새벽예배 및 월삭새벽예배** : 9월 2일(월) 새벽 6시 / 주관 : 관악셀
총동원금요기도회 총동원 금요기도회 : 9월 6일(금) 저녁 8시 30분
- 점 심 제 공** 오늘 점심은 지영 집사님, 박미정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하셨습니다.

| 8월 오후예배 일정 | | | | | | |
|----------------------------|-----------|-------|--------|--------|--------|------|
| 날짜 | 제목 | | | 강사 | | |
| 8월 4일 | 전교인 수련회 | | | 다 함 께 | | |
| 8월 11일 | 성경오류논쟁 4강 | | | 임춘배 목사 | | |
| 8월 18일 | 단기선교 보고예배 | | | 단기선교팀 | | |
| 8월 25일 | 성경오류논쟁 5강 | | | 임춘배 목사 | | |
| 2019년 성경강론 범위 | | | | | | |
| 8/25 | 8/26 | 8/27 | 8/28 | 8/29 | 8/30 | 8/31 |
| | 아가 7장 | 아가 8장 | 이사야 1장 | 이사야 2장 | 이사야 3장 | |
|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 | | | | | |

**한주간의
기도제목**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심령이 되기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일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함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가정예배] 두 종류의 말씀

찬송 : '구원으로 인도하는' 521장(통 253장)

본문 : 예레미야 23장 16~29절

말씀 : 사도 바울은 믿음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난다고 말합니다.(롬 10:17) 말씀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에게 믿음이 생기게 돕는方便인 셈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전달자에 해당하는 용어가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굳이 들추지 않아도 세상엔 극단에 치우친 잘못된 설교자가 꽤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의 형벌 등 율법적인 설교로 성도를 노예 삼는 경우입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가족을 와해시키는 이단 집단의 우두머리가 대표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듣기 좋은 말만 해 성도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세속화시키는 경우입니다.

본문은 후자의 경우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주전 722년 이후에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주전 586년 이전에 주로 활동했습니다. 사이가 좋진 않았으나 어쨌든 같은 민족이던 북이스라엘이 허망하게 무너진 것을 지켜본 남유다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짓 설교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평안을 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을 섬겼지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다. 우리에게 여호와와 성전과 율법, 하나님의 언약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탈하게 지켜줄 것이다."

문제는 이런 메시지를 환영한 사람이 '(하나님을) 항상 멸시하는 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17절) 이들에게 필요했던 건 평안의 약속이 아니라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하는 말씀이었습니다.(22절) 하나님은 평화를 전하는 설교자가 천상의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는 이들이라고 두 차례나 지적합니다.(18, 22절) 한마디로 그런 내용은 천상 회의록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두 가지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과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경제·정치·국제·환경 분야가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소망과 위안을 주는 말씀을 듣길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씀보다 들어야 하는 말씀이 우선입니다.

뇌경색 전조 현상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두통이니 염려 말라는 의사의 진단이 우선은 듣기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의 골든타임은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여호와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삼상 3:10)라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그리스도로 믿은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 1:43)라고 순종의 마음으로 고백하듯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과 들어야 할 말씀을 구분하는 보석 같은 지혜가 우리 안에 자랄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점점 내 심령을 강건하게 세울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멜리데 섬에서 (행 28:1-10)

서론

바울 일행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멜리데 섬에 상륙하여 무사히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1.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일

- (1) 원주민들이 동정하는 마음으로 불을 피워 영접함
- (2) 나무에 있던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지만 조금도 상하지 않음
- (3)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안수기도하여 낫게 함
- (4) 후한 대접을 받으며 그 섬에서 겨울을 남

본론

2. 교훈

- (1)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다.
- (2)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
- (3) 상처주는 말을 들어도 털어 버리라(4,5절).

결론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세상에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 | 오늘 섬기실 분 | 다음 주 섬기실 분 |
|---------|-------------|-------------|
| 예 배 기 도 | 조계승 장로 | 박영근 |
| 헌 금 위 원 | 이태수 이호재 정구원 | 이태수 이호재 정구원 |
| 오후예배 기도 | 허정미 집사 | 김정원 집사 |

매일 성경 강독

사랑이 더욱 깊어짐

날짜 : 8월 26일

| | |
|----------------|---|
| 찬양 |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35장 / 통일 찬송가 492장) |
| 통독 | 아가 7장 |
| 본문 내용 | 본장에는 성숙된 사랑에 의해 나타난 신부 예찬이 기록되어 있다. 춤추는 신부의 매혹적인 자태를 매우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표현은 앞에서 사용했던 것보다 더욱 자극적이고 감각적이다. 이와 같은 신부의 육체 또는 동작의 자세한 묘사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고대 이방의 호색적, 선정적 문학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본서는 결코 육감적 쾌락을 추구하는 에로티시즘적 문학이 아니다. 저자는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더욱 지순한 사랑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영혼과 육체를 분리된 실제로 보지 않고 연합된 대상으로 보고 있는 히브리적 사고를 반영한다. 결국 저자는 육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세밀한 찬사를 통해 신부의 고귀한 인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본장은 솔로몬의 신부 예찬(1-9절), 신부의 성숙한 사랑(10-13절)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생각해보기 | |
| 1 | <p>성숙한 사랑</p> <p>(1) 일시적으로 사랑의 위기가 초래되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더욱 성숙한 사랑으로 승화해 나감</p> <p>(2) 1-5절: 위기를 넘기고 더욱 성숙한 사랑을 이룬 기쁨을 춤으로써 표현하는 솔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루살렘 여인들의 찬사</p> <p>(3) 6-13절: 성숙한 사랑을 체험한 신랑 신부의 고백을 담은 노래. 솔람미 여인은 자기 위주의 이기적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솔로몬과의 관계에서 일시적으로 위기를 맞이하였던 지난날(5:2-8)과는 달리 철저히 신랑인 솔로몬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임(9,10,12,13절)</p> <p>(4) 솔람미 여인이 솔로몬만의 것인 것처럼 교회(성도)는 오직 주님의 것이다.</p> |
| 핵심 단어 | <p>2절. 밀단. 추수 후에 타작 마당에 쌓아 올리는 곡식 단을 가리킨다. 솔람미 여인의 허리를 백합화로 두른 밀단에 비유함으로써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p> <p>4절. 상아 망대. 아4:4에도 목을 망대에 비유하고 있는데, 일천 방패가 달린 망대를 제시함으로 여인의 아름답고 우아함을 묘사하고 있다.</p> |
|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 |
| 기도제목 | |

셀 모임 나눔지

“불순종의 결과”

| | |
|------------|---|
| 찬양과 기도 | 주님 말씀하시면 /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통 427장) |
| 묵상 나눔 |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
| 이야기 속으로 | 한국 교회사 초기에 강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홍의교회는 1897년 강화도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인데, 선교사의 도움 없이 예배당을 건축했고 1년 만에 교인이 80명이 될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종순일이라는 교인은 마을에서 아주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를 읽었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로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오면서 자신에게 1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자 그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며 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임금이 크게 화를 내며 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옥에 가두었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종순일은 며칠을 고민하다 어느 주일 오후, 자신에게 돈을 빌린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것이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것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은 1백 데나리온 빚을 탕감하지 못하는 것보다 악한 것입니다. 오늘 부로 여러분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순일은 성경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
| 말씀 나누기 | 레위기 10:1~11 |
| 묵상포인트 |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중재하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이러한 특권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우리 또한 ‘거룩함’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기본 덕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고, 성경과 세상의 가치관을 구별하는 분별력을 갖출 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구별된 삶은 이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 주는 통로가 됩니다. |
| 나에게 주신 메시지 | |
| 관찰과 묵상 |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1~2절) |
| 적용하기 |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한 일이 있나요? 그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했을지 나누어 보세요. |
| 함께 기도하기 | 저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거룩한 삶으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그리스도인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지니고 이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
| 나의 기도문 | |
| 기도 (중보기도) | |

| | | | |
|----------------|---|---------|-------------|
| 매일 성경 강독 | | 하나님의 심판 | 날짜 : 8월 30일 |
| 찬양 | 인애하신 구세주여 (찬송가 279장 / 통일 찬송가 337장) | | |
| 통독 | 이사야 3장 | | |
| 본문 내용 | 본장의 초반부는 사2:22의 말씀과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가 의지하는 인생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멸망당할 대상 중에는 복술자들과 우상을 만드는 장인들이 그 선두에 있을 만큼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다(1-3절). 또한 통치자들의 권위와 정통성이 사라지고 윤리성의 타락은 사회적인 혼란을 가중시키며, 결국은 유다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4-12절). 뒤이어 특권을 남용하는 지도자들의 폭력적인 행사가 나타나고 이것은 모든 유다 백성들의 타락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13-26절). | | |
| 생각해보기 | | | |
| 1 | <p>무너지는 공동체</p> <p>(1) 1-12절: 세상 것을 의뢰한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결과로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양식과 식수가 단절되며, 나아가 모든 군사,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제하여지고 능력 없는 아이와 부녀자들의 권세를 부리는, 즉 남유다의 사회 질서가 완전 붕괴 될 것임</p> <p>(2) 13-26절: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상류층의 타락과 부패. 그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의 땅과 재산을 탈취하고 그들이 부인들이 사치와 허영, 교만, 음란한 행위들을 일삼음</p> <p>(3) 지도자들이 바른 지도력을 발휘하고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자.</p> | | |
| 핵심 단어 | 9절. 발표하고. 어떤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자신의 죄를 자랑하는 악인의 태도를 말한다. 10절. 복이. 인간이 성실하게 살아간 대가로 받는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나타난 은혜를 뜻한다. | | |
|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 | | |
| 기도제목 | | | |

| | | | |
|----------------|---|---------------|-------------|
| 매일 성경 강독 | | 완전한 사랑에 대한 찬미 | 날짜 : 8월 27일 |
| 찬양 |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 478장 / 통일 찬송가 78장) | | |
| 통독 | 아가 8장 | | |
| 본문 내용 | 본장에서는 두 사람의 더욱 성숙한 사랑과 완전한 부부애가 소박한 시골을 배경으로 하여극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신부는 춤을 계기로 더욱 자신을 깊이 사랑하게 된 신랑을 자기 고향으로 초청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솔라미 여인의 고향인 수벰에 도착하였고,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완전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신부는 자신의 사랑을 오누이 관계의 사랑과 비교하여 말하게 되었고, 그들의 관심은 친족들에게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본장은 결혼한 부부의 온전한 사랑의 모델을 제시해 주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성도의 완전한 사랑을 예표해 준다. 이러한 내용의 본장은 신부의 열망(1-3절), 사랑을 위한 후렴(4절), 신부의 고향에 도착함(5절), 사랑의 절경(6-7절), 과거에 대한 신부의 회상(8-9절), 마지막 사랑의 노래(10-14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솔라미 여인의 이와 같은 사랑을 통해 사랑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으로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다. | | |
| 생각해보기 | | | |
| 1 | <p>완전한 사랑의 갈구</p> <p>(1) 1-4절: 솔로몬에게 한층 성숙해진 사랑을 고백하였던 솔라미 여인은 더욱 완전한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을 표현함</p> <p>(2) 5-12절: 아무런 갈등이나 염려도 없이 부부가 동반하여 친정을 방문하는 가운데 옛 일을 회상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노래함</p> <p>(3) 13-14절: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사랑의 노래를 부름</p> <p>(4)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가 깊어질수록 그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완전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갈구하는 성도가 되자.</p> | | |
| 핵심 단어 | 2절. 교훈을 받았으리라. 솔라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솔로몬의 가르침을 기대하였다. 6절. 인같이. '인을 찍다, 봉인하다'라는 '인장,도장'을 뜻한다. 자신을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는 솔라미 여인의 말은 솔로몬 왕과의 사랑의 관계가 확실해지며 계속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의 표현이다. | | |
|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 | | |
| 기도제목 | | | |

| | |
|----------------|---|
| 찬양 |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가 273장 / 통일 찬송가 331장) |
| 통독 | 이사야 1장 |
| 본문 내용 | 히스기야의 통치의 중간 시대에 만면한 유다의 죄악상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으로 본장이 시작되고 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유다가 어떠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앗수르에 의하여 멸망된 상태였으며 유다도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 갔으며 예루살렘만이 남아 있던 비참한 지경이었다. 이사야는 먼저 유다의 비참한 상황을 애통해 하고 있으며(1-9절)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데 대한 유다 백성들의 신앙적 타락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10-17절).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사랑하시며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18-23절).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패역함에서 돌아오지 않는 백성에게는 심판을 예언하고 있기도 하다(24-31). |
| 생각해보기 | |
| 1 | 남유다의 죄악상 (1) 본서의 저자는 BC. 8세기경의 남유다에서 활약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이며 극도로 타락한 남유다를 향해 심판을 예언하며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이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함 (2) 1-17절: 본격적으로 예언을 선포함에 있어서 먼저 배은망덕한 남유다 백성들의 종교적, 도덕적 죄악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함 (3) 18-31절: 앞의 강경했던 어조와는 달리 부드러우면서도 애절한 심정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사죄를 위한 변론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소개함 (4)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은 배은망덕하고 짐승들보다 못한 삶이다. 은혜를 망각하는 배은의 길에서 돌아설 때 우리는 살 수 있다. |
| 핵심 단어 | 2절. 양육하였거늘. 하늘이나 산 등이 높은 것 또는 비유적으로 영광 또는 교만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의미한다. 13절. 가증히 여기는. '몹시 싫어하다, 미워하다'는 뜻으로, 가증스러운 행동이나 관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낸다. |
|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 |
| 기도제목 | |

| | |
|----------------|---|
| 찬양 | 슬픈 마음있는 사람 (찬송가 91장 / 통일 찬송가 91장) |
| 통독 | 이사야 2장 |
| 본문 내용 | 본장은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말일', '여호와의 날'로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사야는 말일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의 왕으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1-4절).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5-11절).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우상들과 우상 숭배자들, 특히 교만한 자들에게 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시기 때문이다. 유다가 저지른 모든 죄들이 우상으로 비롯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많은 구절들이 나타나며, 이사야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12-22절). |
| 생각해보기 | |
| 1 |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경고 (1) 1-4절: 말일에 세계 만민이 여호와의 전을 중심으로 모여 평화의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예언함 (2) 5-22절: 하나님에 대한 남유다의 종교적 죄상에 대해 지적하여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함. [심판의 이유]①이방인과 언약을 맺은 것(6) ②하나님보다 경제력과 군사력만 믿고 교만한 것(7) ③사람의 손으로 지은 각종 우상을 의뢰한 것(8,9절) (3)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이스라엘은 그럴수록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멸망의 길로 갔다. 우리도 받은 은혜와 복을 잊은 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자. |
| 핵심 단어 | 12절. 한 날. 어떤 특정한 때를 가리킨다. 성경에서는 주로 종말적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 19절. 진동시키시는. '두려워하다, 부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 자주 쓰여진다. |
|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 |
| 기도제목 | |